

# 2022 국악창작곡개발

## '제16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1차 예선 심사결과

### □ 심사 개요

- 심 사 명 : <2022 국악창작곡개발-제16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1차 예선 심사
- 심사일시 : 2022년 5월 17일(화), 10:00~17:00
- 심사장소 : 국악방송 대회의실
- 심사위원 (※ 가나다순)

번호	이름	주요 프로필
1	김보미	- '잠비나이' 멤버 - 해금연주자 -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4호 삼현육각 이수자
2	신창렬	- '21-'22 21c한국음악프로젝트 예술감독 - 창작국악그룹 그림(The林) - 국악, 뮤지컬음악, 창극 등 다수 작곡
3	이나래	- '이날치' 멤버 - '17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프론티어 KB소리상 - '15 제9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은상 (아상블라주)
4	정주영	- 베이스리스트 - '바이날로그' 활동 - 홍대 '생기스튜디오' 대표 - '생기탱천' 공연 시리즈 기획
5	홍정의 (심사위원장)	- '10 제4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대상(AUX) - 국립극장예술단 미르 상임지휘자 겸 음악감독 역임 - 마당놀이, 연극, 창극 작곡 및 음악감독

### ○ 심사항목

심사항목	배점(100점)	심사기준
대중성	30점	- 동시대성의 확보 및 대중 친화도
음악의 완성도	30점	- 노래곡, 연주곡별 구성의 완성도가 높은 곡
독창성과 창의성	20점	- 기존 작품과 구별되는 독창성과 창의성
국악적 요소의 반영	20점	- 국악어법(선율과 장단)이 살아 있는 곡

## □ 심사 결과

○ 심사결과 : 총 20팀 선정 (노래곡 9팀, 연주곡 11팀) (\*접수번호순 표기)

접수번호	팀명	참가곡명	장르구분
10	음악제작소WeMu(Feat.김문고)	얼씨구 얼싸	노래곡
16	양상블하날	윤희	노래곡
17	피리밴드 JC Crew	가위바위보!	연주곡
18	On 澗 - 온돌	휘로(暉路) - 빛의 길	연주곡
22	O	0	노래곡
23	모꼬지	난리굿	노래곡
25	옴브레스	조운모월	연주곡
28	여완 X 케빈	달에게	노래곡
32	Re.motion	O' clock	연주곡
34	매간당	초면인 세계에 눈뜨다	연주곡
41	줄헤르츠(JUL Hz)	블루(Blue)	연주곡
47	소리꽃가객단	제be노정기	노래곡
51	트리거	섬광(蟾光)	연주곡
52	반쯤 핀 꽃	반쯤 핀 꽃	노래곡
53	오프로드	둔	연주곡
55	새벽노들	은하수 왈츠	연주곡
67	놀플러스	SIGNAL 5	연주곡
77	구이임	나비	노래곡
81	양금양상블 양이온	주마등	연주곡
84	이러리-저고리	풀어라!	노래곡

※ 대회운영지침 제18조 3항 "예선 및 본선 심사결과 발표 후라 하더라도 음반, 공연, 방송 등에 발표한 사실이 밝혀지면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선정된 작품이 추후 대회운영지침 [별지5-1]에 기준하여 '발표곡'으로 밝혀질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주요 심사평 (※가나다순)

심사위원	심사평
김보미	어렵게 음악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고가 담긴 음악들 잘 감상하였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기성 팀들의 음악적 성향을 따르는 모습이 많이 느껴져 독창성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았고, 연주의 공력이나 앙상블의 완성도 측면에서도 다소 아쉬운 면이 보였습니다. 따라서 독창성과 앙상블 및 연주력의 완성도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였으며, 전통음악 어법을 잘 활용한 팀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연을 위한 일회성 음악이 아닌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음악 활동을 지향하는 팀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많이 배출되길 바라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창렬	독창적이면서도 실험적인 의지로 발현된 기악곡들이 성악곡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타악 또는 양금과 같은 전통악기 중심의 이색적인 앙상블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통이 반영되는 노래곡에서는 기존의 밴드형태의 관습적인 음악 노트에서 더 이상 진보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이후 멘토링 등 발전 과정을 통한 새로운 시도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각 개인의 연주 역량과 더불어 개성있는 창작곡을 개발하기 위해 독창성을 점검하고 다시 도전하는 과정을 가진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이는 성장을 이루리라 믿습니다.
이나래	시류라고 여겨지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자신의 목소리로 나만의 이야기를 그려나갈 때 그 음악의 형태와는 별개로 빛이 난다고 분명 믿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자신이 어떤 것을 사랑하는지, 즐기고 있는지 찬찬히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주영	다양한 시도와 독창적인 발상으로 전통음악의 여러 면모를 볼 수 있어 즐거운 심사였습니다.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팝음악부터 과감한 실험적인 음악까지 다양한 특성의 음악으로 심사가 난해한 면이 있었지만, 각 음악이 추구하는 방향성에서 얼마나 완성도 있고 세련되게 표현하였는지에 초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접수 작품들의 음악을 접하고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은 아직 많은 작품들이 과거에 행해졌던 퓨전국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기존의 궤를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21c한국음악프로젝트'를 통해 실험적 시도와 세련미, 완성도가 더해지고 아티스트로서의 멋까지 보완된다면 대중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또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음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정의 (심사위원장)	먼저 한국음악을 사랑해주는 동료분들을 만나게되어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음악 본연의 모습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우리와 같은 창작자들은 동시대와 함께 고민하며 짧지만 무거운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21c한국음악프로젝트'는 단순히 장르와의 결합을 넘어 한국음악의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여러분들의 독창성과 가능성을 보려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과정의 한 부분을 살아냅니다. 기술적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노래할 것인가'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이 고민하고 부딪히고 싸워나가기길 응원합니다. 그 결과 '21c한국음악프로젝트'를 발판 삼아 새로운 한국음악의 현재를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이끌어 나가주시길 희망합니다.

□ 향후 일정

구분	일시 및 장소	비고
<p><b>2차 예선 진출팀 대상 '오리엔테이션' 진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예선 안내 및 2차 예선 경연 순서 추첨</li> <li>- 예술감독 팀별 피드백</li> <li>- 2차 예선 기술협의회서 작성 안내 등</li> </ul>	<p><b>5월 24일(화)</b>, 14:00~18:00 / 국악방송 공개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4길 12, DMS빌딩 12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 대표 또는 작곡가 1-3명 참석 (대기 공간이 협소하므로 팀별 1-3명 참석으로 제한)</li> <li>- 팀별로 지정된 시간에 도착, 대기 후 오리엔테이션 진행 (팀별 도착 요청시간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li> </ul>
<p><b>2차 예선 (실연심사)</b></p>	<p><b>6월 11일(토)</b> / 국악방송 공개홀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예선 오리엔테이션 시 추첨한 경연순서에 따라 추후 경연 시작 시간 배정 예정</li> </ul>

□ 문의처

- 국악방송 21c한국음악프로젝트 담당자 02-300-9973 / [21cproject@igbf.kr](mailto:21cproject@igbf.kr)